



#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11.03 / 제10호



## 2018 SEASON

스플릿라운드 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 KEY PLAYER INTERVIEW

'중원의 사령관' 임은수, K리그 1에  
당당히 잔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MATCH PREVIEW

승리 외엔 아무 소용 없다  
상주전에 시합을 걸어라

## IUFC NEWS

블로중·인천중, 인천유나이티드  
미들스타리그 2018 결승 맞대결

## INCHEON UNITED 2018 SQUAD



윤 안데르센 HEAD COACH	박성철 COACH	임중용 COACH	권찬수 GK COACH	자스민 피지컬코치	이승재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용 DEFENDER
김현진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용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곽해성 DEFENDER	32 정동윤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곽해성 DEFENDER	32 정동윤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중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34 김한빈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중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경혁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경혁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조주영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7 남준재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1 조주영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28 이효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 INCHEON UNITED SPLIT SCHEDULE



인천 0:1 대구	인천 V 상주	강원 V 인천	서울 V 인천
10월 28일(일) 14: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11월 3일(토) 16: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11월 10일(토) 14:00 @춘천송암스포츠티운	11월 24일(토) 14:00 @서울월드컵경기장
인천 1:0 전남			
12월 1일(토) 14: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MATCH PREVIEW

# 승리 외엔 아무 소용 없다 상주전에 사활을 걸어라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 어느덧 시즌 종료까지 4경기만 남은 상황이지만 인천유나이티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강등과 잔류의 갈림길에 선 인천은 오늘(11/3) 상주상무와 운명의 맞대결을 치른다.

인천은 올 시즌 상주 상무와 3차례 맞붙어 1무 2패로 열세에 놓여 있다. 6라운드 홈경기(4/11)에서는 후반 종료 직전 임채민에게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고, 13라운드 원정경기(5/13)에서는 전반전에만 3골을 내리 허용하면서 2-3으로 패했다. 그리고 23라운드 홈경기(8/15)에서는 답답한 헛심공방을 이어간 끝에 0-0 무승부를 거두는 데 그쳤다.

앞선 3차례 맞붙었을 때의 상주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 상주는 군팀이라는 특성상 선수단 구성의 변화가 잦다. 선수의 전역과 입대가 겹치며 같은 시즌이어도 전반기, 후반기의 구성원에 큰 차이가 있다. 그나마 가장 최근 맞대결인 23라운드 상주는 지금과 가장 흡사하다.

당시 선발로 출전했던 김민우, 심동운, 윤빛가람은 입대 후 빠른 시일 내에 팀의 주전 공격진으로 자리 잡았다. 김민우는 풀백이 아닌 윙어로 나서고 있고 윤빛가람은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심동운은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한다.

반대로 상주의 수비진에는 변화가 크다. 홍철, 김태환, 여름 등이 모두 전역하고 팀을 떠났다. 권완규, 김경재, 이규성 등 새로운 자원이 합류했지만 앞선 이들에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볼

경합, 태클, 클리어링, 실점 등 수비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상주의 가장 큰 약점은 확실한 골잡이의 부재다. 주민규, 김호남, 이광선 등이 전역했고 인천에서 활약했던 박용지, 송시우 등이 최전방에 배치되고 있다. 김태완 감독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스 내에서 기록한 슈팅수가 12개 팀 중에 최하위라는 게 이를 반증한다.

상대 지역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좋지만 이를 마무리할 선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반면, 인천은 파이널 서드 진입은 리그 내에서 9위로 낮지만 팀내 최다 득점자 무고사, 국내 선수 최다 득점자 문선민의 존재로 박스 내 슈팅, 유효 슈팅 모두가 전체 2위다.

이번 상주전에서 인천에게 승리 외엔 아무 소용없다. 만약 상주에게 패하기라도 하면 상주의 승점차가 9점으로 벌어져 자력 잔류(10위 이내 진입)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한 판 승부다. 절치부심하여 상주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 정말 시즌 종료가 머지않았다. 선수들도 경각심을 갖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승리를 위해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인천은 강하다는 부분을 결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상주전에 인천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KEY PLAYER INTERVIEW

| '중원의 사령관' 임은수, "K리그 1에 당당히 잔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IUFC INTERVIEW

'중원의 사령관' 임은수,  
"K리그 1에 당당히 잔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INCHEON  
UNITED  
**임은수**  
MIDFIELD

1996년 4월 1일  
182cm, 68kg



## “팬들에게 보답하는 일은 열심히 뛰고 승리하는 일”

## “반드시 K리그 1에 당당히 진류하도록 노력할 것”

오늘날 인천유나이티드는 훌륭한 유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거나 있다. U12부터 시작해 U15(광성중), U18(대건고)까지 우수한 성적과 함께 좋은 선수들을 여럿 양성해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인천의 유스 시스템을 거쳐 올 시즌 프로 무대에 입문하자마자 당당히 주전을 꿰찬 선수가 있다. 임은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UTD기자단이 임은수를 만나봤다.

### 차분해지고 시야도 트었다…10점 만점에 7점

임은수는 8라운드 수원전(4/22)에서 데뷔전을 치른 뒤 34라운드 대구전(10/28)까지 K리그 1에서 18경기, FA컵에서 2경기 등 총 20경기를 뛰었다. 이제는 당당히 팀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TD기자단이 지난 6월호 월간매거진 신인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그와 키플레이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데뷔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을 질문했다.

그는 “데뷔 때는 오직 내 몫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다보니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한 것 같다”면서 “경험이 늘다보니 시야도 더 트이고 정신적으로 더 차분해지고 강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홈경기에서는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하지만 원정경기는 아직까지 쫓기는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느덧 시즌 종료까지 4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데뷔 시즌에 대한 평가는 부탁하자 임은수는 “팀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에 성공적이라는 말은 못할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다면 잘 보낸 시즌이라 생각할 것 같다”고 덤덤히 말했다. 이어 “10점 만점에 6.5점 내지 7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골을 넣고 팬들과 함께 응원기를 부르고 싶다

올 시즌 임은수는 총 3골을 기록하고 있다. K리그 1에서 1골, FA컵에서 2골을 넣었다. 임은수에게 다음번에 득점을 넣는다면 하고 싶은 세레머니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서포터석 앞으로 달려가서 짹게라도 내 주도하에 응원기를 부르고 싶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또 “골을 넣으면 시끄러워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해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은 진류를 위한 힘겨운 여정을 잊고 있다. 가장 이기고 싶은 팀이 누군지 묻자 그는 고민 없이 전남을 꼽았다.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개인적으로 대건고 시절 전남 U-18(광양체육고)와 맞붙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지금 프로 팀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전남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올 시즌 임은수는 등번호 39번을 달고 뛰고 있다. 자연스레 등번호에 대한 이야기로 화두가 넘어갔다. 그는 “39번은 대건고에 입학했을 때 달았던 번호다. 이번에 프로에 와서도 배번을 결정할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면서 “신이지만 선배들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많은 경기에 뛰고 싶은 생각을 가졌다. 내년까지는 39번을 달고 뛰고 싶다”고 밝혔다.

### 인천을 위해 희생한 선수로 남고 싶다

앞서 거론했듯이 임은수는 인천의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선수다. 광성중, 대건고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예열을 마친 뒤 인천에 입단했다. 임은수 자신에게 인천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인천은 내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지켜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곳이다. 인천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수는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포지션이다. 팬들의 기억 속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로 남고 싶다”고 운을 뗀 다음 “꾀를 부리기보다는 헌신적으로 팀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려고 한다. 입단 당시에는 팬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팬들이 선물도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임은수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면서 “선수로서 팬들에게 보답하는 일은 열심히 뛰고 승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K리그 1에 당당히 진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을 믿고 열띤 성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 = 김건호 UTD기자 (rjsgh2233@hanmail.net)



## 불로중-인천중, 미들스타리그 2018 결승 맞대결

인천유나이티드 미들스타리그 2018 결승 대진이 확정됐다. 불로중과 인천중이 우승컵을 두고 맞대결한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인천 지역 순수 아마추어 중학생들의 축구대회 '인천유나이티드 미들스타리그 2018' 4강전이 지난달 29일 용담체육공원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올해로 출범 15회째를 맞이하는 미들스타리그는 인천 지역 청소년들의 축구 저변 확대와 축구를 통한 건강한 문화 만들기를 만들기 위한 인천 구단의 주요 사업이다. 올해는 인천 내 중학교 80개교가 참가했다.

먼저 불로중은 제물포중을 1-0으로 꺾었다. 후반 20분 장원영이 환상적인 중거리포로 결승골을 넣었다. 이로써 불로중은 미들스타리그 참가 아래 최초로 결승 무대에 올랐다. 이제 내친김에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인천중 역시 논현중을 1-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전반 16분 김병규의 멋진 헤더볼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미들스타리그 통산 4번째 결승 무대 진출이다. 지난 2015년에 이어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 불로중학교

지도교사 : 노하경



**GK** 정무현 김종현 김주형

**DF** 김현우 송원석 여인숙 임창민 장원영 박준형

**MF** 김윤재 서재형 조승우 한근택

**FW** 윤형원 이준우 정훈영 정홍태 조성준

### 인천중학교

지도교사 : 나정훈



**GK** 김희준 이현수

**DF** 박윤수 유지성 유찬장 영록 장지용 황지환

**MF** 김병규 민경빈 민주원 박상연 박세현 박수철 심종수 조이고리

**FW** 이상윤



IUFC  
**BLUE MARKET**

E 구역

N 구역

S 구역

W 구역

블루마켓은 W석 GATE-WG7 옆 장외 매장과  
E석 1층 관람석 중앙 장내 매장 두 곳에서  
경기 시작 전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A diagram of a stadium seating layout from a top-down perspective. It shows the field in green with the IUFC logo in the center. The seating is arranged in concentric circles around the field. Four points on the perimeter are highlighted with yellow boxes and labeled: "E 구역" (East Stand) at the top, "N 구역" (North Stand) on the left, "S 구역" (South Stand) on the right, and "W 구역" (West Stand) at the bottom.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diagram, there is a text box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market's operating hours.

온라인 블루마켓 <http://www.incheonutdmarket.com>



### Premier Sponsor



### Official Kit Sponsor



### Official Sponsor

posco  
포스코건설

St.JOHN'S  
HOTEL

삼천리

인천도시가스(주)

Inak  
연천하우

kyungshin

CU

부전체육체육  
인천금연지원센터

에몬스가구

Mom's  
TOUCH  
CHICKEN & BURGER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인천도시공사

LH  
인천지역본부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옹진군

연수구  
Yeonsu  
Better life

인천광역시 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 중구  
Chu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Official Partner

ArenaPark  
CONVENTION CENTER

Theatre Park  
THEATRE PARK

FORTRIUM

DRSKIN

OLYMPUS  
HOTEL

Holiday Inn

WEMBLEY  
music sports play

Geoswater  
나 노 산 소 수

GATORADE

하이트진로

THE HILL STORY  
SPA & FITNESS

한국축구협회  
KFA

WE FOOT  
위풋 기능성 한/아웃 논슬립 스포츠 양말

한국축구협회  
KFA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18년 11월 3일 / 등록번호 서울중-라686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http://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16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편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하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천

바로 여기!



블루카페는

E석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UFC  
**BLUE CAFE**

**500원**  
할인 쿠폰

\*본 할인쿠폰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블루카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LUE CAFE**

올 시즌도 인천유나이티드는 E석 팬 라운지에서 블루카페를 운영 합니다. 블루카페에는 더로스터 리뮤즈가 입점하여 팬 여러분들께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합니다. 시즌권 제시시 'SIZE UP'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본 매거진 마지막장에 블루카페 500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 인천 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